

사람이 시작하고 하느님께서 끝맺으신다

세르비아의 B. M 신부



"전 시에 대비해서 병마를 준비하더라도 승리는 주께 달려 있다."(잠언 21,31) 물론 전시에 대비해 병마를 준비해야 한다. 그 외에도 모든 가능한 준비는 다 해야 한다. 그러나 실질적인 도움은 하느님께서 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최후의 승패는 하느님의 도우심에 달린 것이다.

영적 투쟁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덕을 쌓기 위해 노력하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한다. 그러나 결과는 하느님께 달린 것이다. 우리의 준비는 하느님께 무언가를 단순히 제안하는 것일 뿐이다. 그리고 이 제안은 모두가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응답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그 경험으로 '사람이 시작하고 하느님이 끝맺으신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군인은 기도로 그의 정신을 기르고 그의 마음을 무장한다. 그리고 덕을 쌓기 위해 단련하면서 더욱더 투쟁하기 위해 의지를 강화해 나아간다. 그러나 구원은 하느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사업가는 어떤 부분의 사업을 물질적인 데서 영적인 것으로 전환하는 훈련을 날마다 받는다. 그것은 지상의 것을 천상의 것으로 하는 것이요. 썩어 없어지는 것을 영원한 것으로 바꾸는 것이다. 그러나 구원은 하느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농부는 그의 영혼의 밭을 잘 갈아 준비한다. 그리고 거기에 하느님 말씀

의 씨를 뿌리고 가라지와 잡초가 나지 않도록 김매기를 하며 조심한다. 그러나 구원은 하느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다.

파라오의 막강한 기병대도 홍해의 물결을 당할 수는 없었다. 또한 바벨론의 무진장한 보물도 하느님의 버리심을 막지는 못했다.

어떤 사람이 모든 면에서 아무 걱정도 없이 잘 지내다가 예기치 않았던 어떤 일로 인해 모든 것을 다 잃는 일이 있다. 이것은 구원이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고 하느님께 달려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늘나라를 대비해 완전하게 무장하고 완전하게 준비한 성인들도 죽음의 시간이 다가오면 고뇌 속에서 괴로워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덕을 쌓기 위해 한 노력과 흘린 땀을 하느님께서 받아 주실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너희도 명령대로 모든 일을 다 하고 나서는 '저희는 보잘것없는 종입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따름입니다' 하고 말하여라"(루가 17,10)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다 지킨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자기가 한 일로 여기지 말고 누가 지킬 힘을 주셨는가를 생각하라. 그런 다음 "저희는 아무 쓸모 없는 종입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해야 한다.

"오 주여! 우리 구세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내면의 기쁨을 얻는 방법

성 그레고리 팔라마스 (1296-1359, 신학자. 데살로니카의 대주교)



당신의 정신을 마음 안에서 집중하십시오. 오.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간직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세상의 일 속에서 이곳저곳으로 흩어져서 마침내는 세상일에 의해 산만하게 분산되지 않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당신의 정신은 당신의 의지를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간직하고 있는 곳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당신은 그 밖의 다른 어떤 것도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

의 의지와 하느님에 대한 사랑은 일치되어 하나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기쁨도 더 이상 당신에게 관심거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하느님을 향한 사랑에만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따라서 당신의 정신은 오로지 하느님만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이런 움직임만이 당신의 마음을 기쁨으로 채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앙 탐구

예수 기도와 기도 매듭

정교회는 끊임없는 기도를 위해서 꿈보스끼니라는 '기도 매듭'을 사용합니다. 보통 왼손에 기도 매듭을 잡고 엄지손톱으로 마디 하나를 넘길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오른손으로는 십자 성호를 긋는데, 이 짧은 기도를 '예수 기도'라고 부릅니다.

이 간단한 기도와 몸에 긋는 십자 성호에는 우리 신앙의 전부가 함축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도자는 진실한 이 예수 기도로 자신을 성화하는 은총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주님이시며,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므로 당연히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다. 종은 주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선포한 이상 그분의 계명에 따르며, 그분의 법에 완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아들이로서 육신을 취하신 하느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으로서의 능력에 의지하여, 죄 속에 있는 가련한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구원의 자비는 죄의 인식 없이는 있을 수 없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깊이 깨닫고 회개함으로써 하느님의 자비를 기대하게 됩니다.

(4면으로 계속)

40일 성찬예배

故 소티리오스 대주교의 영혼의 안식을 위한 40일 성찬예배가 부산 성당에 이어, 이번주(7/4-7/9)에는 전주 성모 안식 성당에서 거행됩니다.

성인의 가르침

성 이사야

수도자

형제들이여, 날마다 어려움이 닥치리라 각오하십시오. 그것이 죽음이건, 고통이건, 큰 위험이건 간에 말입니다. 그리고 두려워 말고 그 어려움들을 참고 견디시오,

그리고 “우리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다.”(사도행전 14,22)라고 하신 말씀을 잊지 마시오.

(3면에서 계속)

회개는 다시 범죄 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함께해야 합니다. 이런 의지로 죄악에 묶여있는 우리 영혼은 사슬을 끊고 하늘로 향하게 되어 거룩함 속에서 영원한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깊은 의미의 기도를 올리며 십자 성호를 긋습니다. 자기 몸에 긋는 십자가는 자신의 죄를 십자가에 달아매어 죽이는 회개이며, 회개한 자신에게 사탄이 다시 침범하지 못하게 하는 방패이며, 그리스도의 성혈로 받게 되는 구원이며,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넘어가는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소식

■ 대교구 여름 수련회 공고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대교구 여름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수련회는 예배와 기도, 공동생활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과 젊은이들이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거룩한 사업입니다. 부모님들이 먼저 많은 관심으로 아이들의 참여를 독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청은 각 성당 사무실에서 오는 15일까지 받습니다.

장소 : 춘천 성 보리스 성당 사회복지관

일정 : 7/25(월)-29(금): 초등부, 중등부 (참가비 12만원)

7/29(금)-8/1(월): 고등부, 신데즈모스 (참가비 9만원)

■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세례 성사

지난 주일(6월 26일), 유아 Li Eva와 초등학생 Tsoy Mark의 세례 성사가 로만 신부 집전으로 거행되었습니다. 세례 축하합니다.

■ 인천 성 바울로 성당 축일

성 바울로 사도의 축일을 맞아 암브로시오스 대주교께서 지난 주일(6/26), 다니엘 대신부와 함께 성찬예배와 아르토클라시아 의식을 집전하였습니다. 대주교께서는 설교에서 “바울로 사도를 본받아 따르며 사셨던 분으로, 우리의 영적 아버지 故 소티리오스 대주교님이 계십니다. 고인께서는 바울로 사도처럼 하느님에 대한 열성과 사랑으로 밤낮 없이 선교 활동을 하셨고,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남에게 베푸는 삶을 실천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성 사도와 대주교님의 본을 따름으로써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갑시다.”라고 전하셨습니다. 예배 후에는, 신자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영적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